회사소식

웨이스가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와 전사 업무 AX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확정 계약 40억 원 돌파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11월 17일

웨이스가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와 회사 전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AX 계약을 맺었습니다. 웨이스는 경쟁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올해 웨이스가 계약과 협약을 마친 확정 계약은 15건,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는 이 계약으로 고객사 12개 부서의 업무를 VEXPLOR WORK 한 곳에 모읍니다. 아래에서 계약에 담긴 일과 올해 계약 실적, 이 계약 다음에 웨이스가 가려는 방향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웨이스가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와 전사 업무 AX 계약을 맺었습니다

01

웨이스는 12개 부서의 업무를 약 9개월 동안 VEXPLOR WORK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번 계약은 한 부서의 시범 도입이 아니고, 회사 전체가 대상입니다. 고객사 12개 부서의 업무를 진단하는 일에서 시작해, 부서별 우선 업무 문서를 한 곳에 모아 AI가 찾고 요약할 수 있게 정리하고, 부서마다 반복되는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는 일까지 들어 있습니다. ERP와 MES처럼 이미 쓰고 있는 업무 시스템도 연결합니다.

AI 모델은 고객사 서버 안에 두고, AI는 회사 문서를 근거로 답하고 초안을 올립니다. 결정은 각 부서 담당자가 합니다.

단계	하는 일	남는 것
진단 · 설계	부서 인터뷰 · 통합 설계	진단 보고서 · 설계서
구현	전사 실행 환경 구축	12개 부서 권한 개통
부서 적용	두 차례 부서군 적용	업무 흐름 자동화
안정화 · 이관	운영 안정화	운영 이관 검수

구축은 이번 달 시작해 내년 여름에 마칩니다. 구축이 끝난 뒤에도 웨이스가 3년 이상 사용권과 유지관리를 함께 맡습니다.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부서마다 흩어진 문서와 기록이 VEXPLOR WORK 한 곳에 모입니다

02

이 계약은 부서마다 따로 쓰는 AI 도구가 아니라 회사 하나의 기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직원에게 AI 도구를 나눠 주면 각자의 일은 빨라집니다. 그래도 회사가 일하는 기준은 여전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견적 기준이 바뀌어도 어느 문서까지 고쳐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몇 명뿐이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판단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웨이스는 VEXPLOR WORK로 이 문제를 다르게 풉니다. 문서와 기준, 업무 기록을 한 곳에 모으고, AI는 그 기록을 근거로 답과 초안을 내놓습니다.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도 같은 기록에 남습니다. VEXPLOR WORK는 웨이스가 사내에서 쓰던 업무 AI 도구를 제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AI가 초안을 올리고, 결정은 부서 담당자가 합니다

03

올해 웨이스의 확정 계약은 15건,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웨이스가 2026년에 계약과 협약을 마친 건은 15건, 금액은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장 데이터를 연결하고 AI가 판단 초안을 올리는 공장 DX · AX 구축에 더해, 이번에는 회사 전체의 사무 업무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구분	내용	상태
공장 DX · AX 구축	설비 데이터 · AI 판단	진행 중
전사 업무 AX	12개 부서 업무 통합	11월 착수
올해 확정 계약	15건 · 40억 원 이상	협약 완료 기준

04

웨이스는 사무의 두뇌에서 공장 운영의 두뇌, 기업 전체의 두뇌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웨이스가 가려는 방향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사무 업무의 기록을 한 곳에 모으는 사무의 두뇌입니다. 둘째는 설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을 먼저 만들고 무엇을 멈출지 판단 초안을 내놓는 공장 운영의 두뇌입니다. 셋째는 기획과 개발, 공장, 판매가 같은 기록 위에서 움직이는 기업 전체의 두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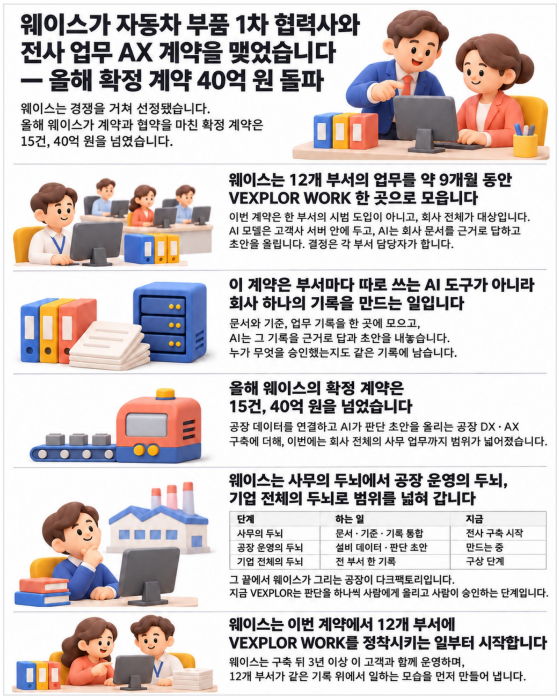
단계	하는 일	지금
사무의 두뇌	문서 · 기준 · 기록 통합	전사 구축 시작
공장 운영의 두뇌	설비 데이터 · 판단 초안	만드는 중
기업 전체의 두뇌	전 부서 한 기록	구상 단계

그 끝에서 웨이스가 그리는 공장이 다크팩토리입니다. 사람이 목표와 예외를 정하고, AI가 같은 기록 위에서 판단 초안을 올리고, 승인된 판단이 설비 제어까지 연결되는 공장입니다. 지금 VEXPLOR는 판단을 하나씩 사람에게 올리고 사람이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웨이스는 이 범위를 한 단계씩 넓혀 갑니다.

05

웨이스는 이번 계약에서 12개 부서에 VEXPLOR WORK를 정착시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는 완성차 일정에 맞춰 설계와 생산, 품질, 구매가 촘촘하게 맞물려 움직입니다. 부서 사이에 오가는 기준과 기록이 한 곳에 모이면 일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남습니다. 웨이스는 구축 뒤 3년 이상 이 고객과 함께 운영하며, 12개 부서가 같은 기록 위에서 일하는 모습을 먼저 만들어 냅니다.



이 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웨이스가 하는 일이 궁금하시면: wace.me

WACE(웨이스)는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06

함께 읽어보세요

- 웨이스는 AI를 직원 개인의 도구로 쓰지 않고, 회사의 업무 흐름에 넣어 기업의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웨이스가 CES 2027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 Suite, Enterprise Tech 부문
- 고객 회의에서 나온 요구사항은 개발 대기열에 닿기 전에 어디서 누락되나 — 회의 직후 할 일·자료 요청·결정 필요로 나누는 법

원문 blog.vexplor.com/post/wace-enterprise-ax-contract-tier1
발행 2026년 11월 17일 ·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회사 주식회사 웨이스 (WACE Inc.) · 대표이사 방동걸 · 사업자등록번호 439-87-02852
주소 (18462)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A동) 1702-1708호 (영천동, 실리콘앨리동탄)
연락처 전화 070-4730-0629 · contact@wace.me
홈페이지 wace.me · linkedin.com/company/wace-inc

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